

공유경제의 도서관 적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pplying the Sharing Economy to Libraries

노 영 희 (Younghee Noh)*

초 록

공유경제가 향후 10년을 지배할 지속가능한 시스템,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10가지 아이디어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는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공유경제가 도서관과 어떤 관련성이 있으며, 공유경제의 핵심모델로서 도서관은 공유경제 활성화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공유경제관련 문헌분석 및 공유경제 실현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서관은 수세기 동안 정보 및 도구를 공유해 온 공유경제의 성공적 모델로서 도서관이 공유경제를 리드할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도서관은 무한상상실 및 스마트워크센터 기능을 하는 장소 및 공간의 공유, 도서관의 각종 자원은 물론 리틀프리도서관을 통한 물품의 공유, 그리고 참고서비스 및 각종 지식의 공유를 통해 공유경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도서관에 공유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내고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사서라는 것이다. 향후에는 도서관 공유경제 실현사례의 성과를 측정하는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ABSTRACT

The sharing economy has been evaluated as a sustainable system dominating the next 10 years and one of the 10 ideas which can change the worl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eal whether there is any relevance between the sharing economy and libraries, if the library can be the core model of the sharing economy, and to propose how libraries could contribute to a sharing economy. To this end, literature related to the sharing economy and the actual cases of its implementation were analyz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library was evaluated as a successful model of the sharing economy because it has shared information and tools for centuries. Therefore, it was concluded that the library could be an institution that can lead to a sharing economy. Second, it was analyzed that the library could foster the sharing economy through offering its space, and functioning as the infinite imagination room and smart work center, sharing goods through Little Free Libraries, as well as various other resources of library, and sharing various types of knowledge including reference services. Third, it can be said that the possibility of realizing a shared economy in libraries is inexhaustible, and librarians can play an active role and will positively influence the success or failure in terms of realizing the sharing economy. In the future, there needs to be a study to measure the practices and the performance of the sharing economy of libraries.

키워드: 공유경제, 도서관 적용, 장소의 공유, 물품의 공유, 지식 및 서비스의 공유

Sharing Economy, Applying to Libraries, Sharing the Place and Space, Sharing Goods, Sharing Knowledge and Services

* 건국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irs4u@kku.ac.kr)

논문접수일자 : 2016년 8월 17일 논문심사일자 : 2016년 9월 2일 게재확정일자 : 2016년 9월 12일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7(3): 75-98, 2016. [http://dx.doi.org/10.14699/kbiblia.2016.27.3.075]

1. 서론

공유경제의 부상을 예상한 Botsman과 Rogers (2010)는 공유경제를 경제가 회복되면 시들해질 단기적 현상이 아닌 향후 10년을 지배할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소개하였다. 이러한 공유경제는 인터넷과 다양한 새로운 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글로벌 소셜공간의 시대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 하였다(Rifkin 2011). 타임지(Time)에서도 세상을 변화시킬 10가지 아이디어 중 하나로 공유경제를 선정하였으며(Time 2011), Forbes(2013)는 모든 것을 공유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설명과 함께 공유경제를 전 세계적인 키워드로 지목했고(Geron 2013), Economist (2013)는 세계 산업계가 공유경제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2013년 3월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정보산업 박람회인 '2013 CeBIT 하노버'에서는 공유경제를 주제로 행사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또한 미국도서관협회에서도 미래 도서관의 트렌드 중의 하나로 공유경제를 소개하고 있다(American Library Association 2015).

세계적인 일간지 및 경제학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공유경제(Sharing Economy)는 2008년 미국 하버드 법대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 교수에 의해 처음 사용된 용어로, 한 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 쓰는 협업소비를 기본으로 한 경제 방식을 의미하며 '물품을 소유의 개념이 아닌 서로 대여해주고 차용해 쓰는 개념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것'으로 정의되었다.

공유경제가 적용된 사례로 현지인 여행 가이드 서비스, 플레이 플레닛 현지인 여행 가이드 서비스, 열린옷장-면접용 정장 대여 서비스, 키

플-유아 및 어린이 의류교환 서비스, BnBHero-민박 공유 서비스, 코업-사무공간 대여 서비스, 위즈돔-지혜, 경험, 이야기 공유 서비스, 트립플-여행경험 콘테스트 서비스, 국민도서관 책꽂이-도서 대여 서비스, 집밥-소셜 다이닝 서비스, AirBnB-전세계 숙박공유 서비스, 자동차의 공동소유를 통해 가용한 시간에 차를 이용하게 만들어 주는 Zip Car 등이 있다.

공유경제라는 말이 우리 도서관 분야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지만, 도서관은 오래 전부터 이미 공유경제를 실현하고 있었던 대표적인 기관들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2015년 5월 전주시의회는 다양한 공유경제 모델 중 시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성상에 있는 생활공구 등을 대여하는 공구도서관 시행을 제안하기도 했다(국제뉴스 2015). 이 제안에서 공구도서관의 목적 중 하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으로, 지역사회와의 공간, 생활 공구, 기술 등의 자원을 함께 나누어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공유문화가 생활 저변에 확대되어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구도서관은 전동드릴이나 생활 공구, 예초기, 스페너 세트, DIY(Do It Yourself) 공구 등 구입비용이 부담스럽거나, 사용빈도가 낮아 구입 후 가정에서 보관이 곤란한 각종 공구들을 모아서 시민들이 필요할 때마다 집 가까운 곳에서 대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하며, 이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한상상실 공간을 확장한 개념임을 알 수 있다. 또한 2015년 12월 주민자치위원들의 정보공유와 역량강화를 위해 열린 가평군 한마음 축제에서 똑똑도서관 관장은 공유경제의 개념과 필요성을 언급하며 공유문화에 대한 가치에 대해 강

의하였다(시민일보 2015).

공유경제의 개념을 도서관에 적용해야 한다고 국내의 정치권에서 주장하고 있을 때 Garlick (2014)은 2014년 1월에 '도서관이 진정한 공유경제의 개척자'라고 주장했다. 즉, 책이 이용자 간에 공유되고, 그 공유 가치는 무한하며 효율성은 증가하게 되는데, 도서관 공유경제 모델과 현 공유경제비즈니스모델(Uber, Peerby, AirBnB 등)의 유일한 차이는 배포매체와 기초자산의 궁극적인 소유권이라는 것이다. 2014년 6월 Mies (2014)도 최근에 공유경제가 핫이슈가 되고 있지만 도서관에 있어서 공유경제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즉, 도서관은 수세기 동안 정보, 미디어, 각종 도구 등을 공유해 왔으며, 따라서 도서관은 공유경제의 성공적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유경제가 도서관과 어떤 관련성이 있으며, 공유경제의 핵심모델로서 도서관이 공유경제 활성화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공유경제의 핵심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고, 공유경제를 실현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 및 도서관의 공유경제 실현사례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공유경제의 이해

1) 공유경제의 개념

공유경제라는 말은 2008년 미국 하버드 법대 로렌스 교수의 저서 『리믹스』를 통해 최초로 사

용되었다. 이는 한 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 쓰는 협업소비의 개념에서 출발하였으며, 기존 자원(즉, 유희자원)을 활용해서 서로 이익을 얻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제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김은란 2015).

Botsman과 Rogers(2010)는 공유경제를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화에 대한 접근권이나 사용권을 타인과 공유·교환·대여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내는 것을 의미하며 협력적 소비(Collaborative Consumption)를 바탕으로 한다고 하였다.

Gansky(2010)는 공유경제를 개인의 재화와 IT기술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과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및 관련 현상으로 지칭하였으며, 이러한 비즈니스를 일컬어 'The Mesh'로 지칭하였다.

또한 공유하는 사람들(The People of who share)의 의장인 Matofska(2014)는 공유경제를 인적, 물적 자원을 공유하는 사회-경제적 생태계(Socio-economic Ecosystem)를 만드는 것이며, 다른 사람과 조직에 의해서 공유의 창조(Shared Creation), 생산, 분배, 교환 및 용역의 소비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였다.

Sundarajan은 공유경제를 한마디로 "새로운 경제이며, 물품을 소유하기보다는 서로 나누면서 모든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다"라고 하였다(머니투데이 2014).

한편, 서울시에서는 2012년 9월 20일에 <공유도시(Sharing City), 서울>을 선언했고, 2012년 12월 31일에는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에서는 "'공유'란 공간, 물건, 정보 등을 함께 나누어 활용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높이고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활동을 말한다”라고 정의하였다(『서울특별시 공유 촉진 조례』 제2조1항). 따라서 공유경제(Sharing Economy)란 이러한 공유를 활성화하는 경제인 것이다.

이러한 공유경제의 개념을 그림으로 제시한 클라우드산업연구소의 공유경제의 모델은 다음 <그림 1>과 같다. 공유경제 플랫폼을 기반으로 대여자와 이용자가 연결되며 대여자가 유휴자원을 플랫폼에 제시하면 이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가 이를 대여하고 대여료를 지불하며 대여자는 대여수익을 얻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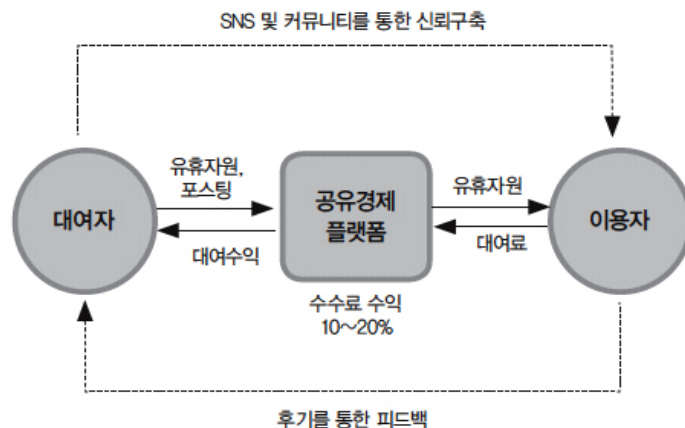
위의 정의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공유경제는 물품을 소유의 개념이 아닌 서로 대여해 주고 차용해 쓰는 개념의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며, 공간, 물건, 정보 등을 함께 나누어 활용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높이고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경제활동으로 정보통신 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과 협력적 소비를 기반으로 현명한 소비자들이 자신의 유휴자원을 공유하며, 신뢰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내는 경제활동

이라 할 수 있다.

2) 공유경제의 등장배경 및 원리

공유경제의 배경은 2008년 세계경제위기로 인해 저성장, 취업난, 가계소득 저하 등 경제적인 문제의 발생으로, 경쟁적 소유 또는 과소비에서 합리적인 소비로 전환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더 나아가 IT기술과 소셜네트워크의 발달은 개인간 거래 및 타인에 대한 신뢰, 평판 조회 등 협력소비 수단을 편리하게 활용하여 다양한 공유경제(기업)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김점산, 지우석, 강상준 2014).

공유경제에 대한 개념과 비즈니스 모델이 확산되어 가는 가운데, 2014년 60개국의 30,000명 이상의 인터넷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공유경제 비즈니스의 참여의사를 묻는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설문조사 결과 68%의 이용자들은 구입한 자신의 개인용품을 공유하거나 대여할 용의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66%의 응답자는 다른 사람의 물품과 서비스를 사용할 용의가 있다고 응답하였다(Gilpin 2014). 구체적으로 공유하거나



<그림 1> 공유경제 모델(자료: 클라우드산업연구소)

대여할 수 있는 용품으로는 전기장치(28%), 전기도구(23%), 자전거(22%), 옷(22%), 집의 각종 물품(22%), 스포츠장비(22%), 자동차(21%), 캠핑장비(28%), 가구(17%), 집(15%) 등으로 나타났다.

공유경제의 성공여부는 믿음에 크게 의존한다고 할 수 있는데, 사회적 기술들은 공공의 피드백, 검토, 코멘트, 연결을 통해 개선될 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호주 노동당에서는 공유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6가지 조건을 제시하였으며(Gilpin 2014)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유하려는 주된 자산은 본인의 소유여야 한다.
2. 새로운 서비스는 좋은 급료와 노동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3. 모든 이들은 공정한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
4. 공공의 안전을 위해 적절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
5. 모두에게 접근권이 열려 있어야 한다.
6. 규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과거의 공유경제 개념은 자신의 노동력 및 경험을 이웃에게 나눠주는 품앗이, 서로의 물건을 교환하는 아나바다 운동 등이 있었으나 그러한 공유경제가 최근에 더 활발하게 된 이유를 김은란(2015)은 다음과 같이 요약해서 제시하고 있다. 첫째, 공유경제가 대여자, 이용자, 공유기업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상생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IT기술의 발달과 소셜네트워크의 발달로 개인거래 참여를 확대시켜 다양한 공유기업의 활동기반이 구축되었기 때문이다. 실시간 정보수집을 통해 거래비용을 제로 수준으로 떨어뜨리고, 개인간 거래실적 및

타인에 대한 평판조회 등이 가능해지면서 온라인 거래가 더 활기를 띠게 된 것이다. 셋째,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의 위축,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 능동적 소비자의 탄생 등으로 공유경제가 확산된 것이다.

3) 공유경제의 대상

공유경제의 우수 사례들을 살펴보면, 해외에서는 빈집이나 빈방을 공유하는 'Airbnb', 모바일 차량공유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Uber' 등의 공유기업들이 다국적 기업으로 성장하면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공유기업 및 단체가 2011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카풀링, 물물교환, 코워킹 공간 임대, 숙박공유 등 다양한 부문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처럼 공유경제는 개인, 집단, 대중 간의 유희자원 공유를 근간으로 하며, 공유가능한 유희자원, 즉 공유경제 대상은 공간(장소), 지식, 교통, 물건 등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있다. 공유분야도 물건, 도서, 자동차, 공간, 숙박, 경험·재능·지식, 여행, 공공정보 등 그 범위가 다양해지고 있다.

Botsman과 Rogers(2010)는 공유경제를 제품 서비스 시스템(Product Service System), 재분배 시장(Redistribution Market), 협력적 생활방식(Collaborative Lifestyle)으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제품 서비스 시스템은 전형적인 공유경제 서비스에서 나타나는 시간대를 나누어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하는 체계를 의미하며, 재분배 시장은 중고물건의 거래와 같이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양되면서 재화에 대한 추가 소비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협력적 생활방식은 지역사회 내에서 서로 간에 도움을

주고받는 형태의 생활방식을 의미한다.

2.2 공유경제 실현 사례

현재 공유경제를 실현한 사례는 국내외적으로 상당히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유경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공유경제 비즈니스 또는 사례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사례들의 분류는 분류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다. 즉 공유경제 사례분류방식은 주제, 유형 및 무형, 공유유형, 제공서비스별 등으로 연구자들에 따라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제공서비스별로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 및 기업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표 1〉 참조). 즉, 제품서비스는 사용자들이 제품 혹은 서비스를 소유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대여사업과 유사하고, 물물교환은 필요하지 않은 제품을 필

요한 사람에게 재분배 하는 방식으로 주로 중고물품 거래에 해당하며, 협력적 커뮤니티는 커뮤니티 내 사용자간의 협력을 통한 방식으로 유·무형 자원 전체를 포괄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유경제자원을 장소, 물건, 교통, 지식 등으로 구분하여 사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장소 또는 공간은 여행자 숙소, 사무실, 기숙사, 레스토랑, 카페, 스튜디오 등이 될 수 있고, 교통은 자동차, 카풀, 오토바이, 자전거, 요트 등이 될 수 있으며, 물건은 아동복, 장비 및 기계, 도서, 유아용품, 스포츠 캠핑용품 등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정보와 서비스는 지식과 경험, 크라우드 펀딩, 인력중개, 여행 등이 될 수 있다.

2.2.1 장소 또는 공간의 공유

공간 또는 장소의 공유는 공유자원에 따라 주거시설, 업무시설, 주차시설, 공공시설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공유유형에 따라 숙박공유,

〈표 1〉 공유경제의 제공 서비스에 따른 분류

제공서비스	거래방식	공유자원	공유기업	
			국내	국외
제품서비스 시스템	사용자들이 제품 혹은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고 사용하는 방식	자동차	쏘카, 그린카	Zipcar, Streetcar, GoGet
		바이크	푸른바이크	Velibm, Barclays Cycle Hire
		장난감	희망 장난감 도서관	DimDom, BabyPlays
		도서	국민도서관, 책꽃이	Chegg, Zookal
재분배 시장	필요하지 않은 제품을 필요한 사람에게 재분배하는 방식	각종 의류	키플, 열린옷장	Threadup, Swapstyle
		무료, 상품권 교환	띠앗	Freecycle, GiftFlow
		경매시장	옥션, G마켓, 11번가	ebay, craigslist, flippid
협력적인 라이프스타일	커뮤니티 내 사용자간의 협력을 통한 방식	공간	코자자, 모두의 주차장	AirBnB, Rommorama
		구인 구직	알바몬, 알바천국	Loosecubes, Desknearme
		여행경험	플레이플레닛	AirBnB
		지식	위즈돔	TeachStreet, TradeSchool
		택시 카풀	티클	Taxi2, Taxideck, Taxistop
클라우드 펀딩	씨앗펀딩, 굿펀딩	Kickstarter, Indiegogo		

출처: 경기개발연구원(2014), 3쪽, 중앙일보(2014. 7. 24) 재편집 및 작성

〈표 2〉 공유유형에 따른 운영주체별 사업

공유자원 (공유공간)	공유유형	공유기업	
		공공	민간
주거시설	숙박공유(숙박시설로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민박: 코자자(Kozaza), BnB HERO, LABO, hanintel, Homestay korea
	주거공유(셰어하우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공유프로그램: 한지봉 세대공감(서울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콘셉트 셰어하우스 우주(Woozoo), 서울소셜스탠다드, 블랭크
업무시설 (민간시설)	사무공간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무공간 대여: 코업(Coup) 코워킹공간 공유: Space Noah, 슈퍼에그 플레이스 복합 창업생태계 허브: 드림뱅크(D.Camp-은행권청년창업재단이 운영), 흥합밸리
	가게공간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토어셰어링(Store-Sharing) 팝업스토어를 위한 공간정보: POINSPOT
주차시설	주차장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눔 공유주차자 우선주차제: 용산구 주거지주차 공유사업(강동구) 임대아파트 단지 내주차공간 공유(성북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공간 정보제공: 셀파크(Selpark), 모두의 주차장
공공시설	주민센터, 문화, 체육, 교육시설 등의 개방과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시설 개방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구축(서울시) 공적공간 정보서비스: 모두의 공간(국토교통부) 	
기타	창작공간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간공유, 교육프로그램 제공: 일상예술창작센터, 문하로놀이장
	공연공간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물공터나 로비 등을 거리공연자에게 제공: 버스킹플레이(BuskingPlay)
	유희 농작지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텃밭 공유: 코코팍스
	교회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은결혼식, 반사회: 처치플러스

주거공유, 사무공간 공유, 가게공간 공유, 주민센터, 문화, 체육, 교육시설, 창작공간, 공연공간, 유희농작지, 교회 공유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 2〉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에서 제시한 장소공유 유형이며, 그 중에 AirBnB, 코자자 등 몇 가지를 좀 더 깊이 있게 분석하고자 하였다.

1) AirBnB(<http://www.airbnb.co.kr>)

AirBnB는 조 게비아(Joe Gebbia)와 브라이언 체스키(Brian Chesky)가 2008년 8월에 창

립하여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두고 있다. AirBnB는 온라인 및 모바일에서 전 세계의 독특한 숙소들을 올리고, 발견하고, 예약할 수 있는 숙박공유 서비스로, 숙박업에 현지문화 체험을 결합하여 차별화에 성공한 모델이다. 서비스 시작 이후 192개국 35,000여 개 도시로 확대되었으며 8만 개 이상의 방(공간)에 대한 숙박을 증개하고 있다. 창업 3년 만에 객실 수에서 세계 최대 호텔 체인인 힐튼을 앞섰다. AirBnB에 올라온 한국지역 숙박시설에 예약한 사람은 전년보다 858%나 증가했다. AirBnB에

공유된 한국 숙박 시설은 현재 900건으로, 누적된 예약 날짜만 5만 일에 이른다.

조 게이비는 AirBnB의 성공 비결을 값싼 숙박을 원하는 여행자와 남는 방을 대여해 소득을 올리고 싶어하는 집주인의 요구를 동시에 해결해준 데 있다고 하였다. 또한 그는 “여행을 할 때 인위적으로 꾸며진 방이 아니라 가공되지 않은 그 나라의 문화와 공간을 느끼고 싶어하는 외국 여행객들의 욕구를 해결하고 동시에 높은 집값에 재무적 부담감을 느끼는 집주인들의 고민을 덜어준 것이라고 하였다(조선일보 2013.1.29.일자).

2) 코자자(<http://www.kozaza.com>)

코자자는 여행객과 집주인이 빈 방을 공유하는 ‘빈방 공유 소셜 민박’서비스를 운영한다. 여행자는 자기 취향에 맞는 숙소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고, 집주인은 남는 방을 공유해 수익을 올리고 글로벌 친구도 사귄다. 이는 코자자 도우미가 여행객과 집주인이 서로 믿을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방식이다. 코자자는 여행객과 집주인의 신뢰관계, 그리고 불필요한 건축을 줄여 지구환경을 지키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3) 한지붕 세대공감

‘한지붕 세대공감’은 서울시에서 ‘공유 서울’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거공간의 여유가 있는 독거노인과 주거공간을 필요로 하는 대학생들을 연결해주는 서비스(Room Sharing)이다. 이 사업을 통해 대학생의 주거문제와 노인들의 사회적 소외라는 두 문제가 만나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줄 수 있었다. 한지붕 세대공감은 사회와 단절되어 있는 노인과 청년세대와

의 접점을 만든 것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혁신을 만들어낸 사례로 꼽히고 있다.

4) 비엔비히어로(<http://www.bnber.com>)

비엔비히어로는 한국에서 시작한 ‘공유경제 기반의 개인여행 플랫폼’으로 평가되고 있다. 빈 방 수요자와 공급자를 인터넷에서 연결하는 방식으로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손님과 집주인 간 사전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후기 등이 사업의 핵심 요소이다. 비엔비히어로는 2012년 여수엑스포 당시 지역주민들이 168개의 빈 방을 대여해 국내외 방문자들의 숙소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였다.

2.2.2 교통의 공유

교통의 공유는 자동차 과잉생산과 그에 따른 주차공간 부족, 유지비용 감소 등을 해결하여 환경적인 건전성을 도모 및 자가용 이용의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측면을 고려한 사회문화적인 혁신을 동시에 꾀하고 있다.

1) Uber(<http://www.uber.com>, <http://www.facebook.com/uberkorea>)

Uber는 2009년 가렛 캠프(Garrett Camp)와 트레비스 칼라닉(Travis Kalanick)이 UberCab 이라는 이름으로 설립하였다. 2010년 8월 라이언 그레이브(Ryan Grave)가 CEO로 부임하여 참여하고 있다. Uber 서비스는 공식적으로 2010년 6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되었으며, 현재 세계 35개국 94개 도시에 진출해 있다.

Uber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를 기반으로 한 운송 네트워크 회사이다. 이 기업은 고용되거나 공유된 차량의 운전기사와 승객을

모바일 앱을 통해 중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차량의 예약은 텍스트 메시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진행되며, 모바일 앱에서는 예약된 차량의 위치가 승객에게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사업초기에는 링컨 타운 카, 캐딜락 에스칼라데스, BMW 7시리즈 메르세데스-벤츠 S550 세단 등을 차량으로 제공했으나, 2012년부터는 UberX를 출시하여 더 넓은 시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저렴한 모델의 차량을 포함하여 기존보다 더 다양한 차량의 선택 폭을 제공하고 있다(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 현재 Uber에서는 Uber블랙(고급 렌터카를 운전기사와 같이 이용자에게 대여하여 운송 서비스를 제공), UberX(개인이 소유한 자가용 승용차로 운송 서비스를 제공), Uber택시, 우버 SUV, Uber럭스 등의 서비스를 하고 있다.

Uber택시는 한국에도 2013년 7월에 진입해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영업 중이었으나, 국토교통부는 불법 택시 영업이라 규정했고, 서울시 역시 최근 Uber의 알선수수료 20% 수취에 대해 국내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법이라고 고소한 바 있다.

2) ZipCar(<http://www.zipcar.com>)

ZipCar는 자동차 공유 모델로 자동차를 필요한 시간만큼만 대여해 주는 모델이다. 1999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2013년 현재 78만여 명의 회원과 1만 여대의 자동차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수익이 2005년 1,366만 달러에서 2012년 2억 7,900만 달러로 급격한 성장세를 보였다. ZipCar는 2013년 세계적인 렌터카 업체인 에이비스(AVIS)에 5억 달러에 매각되었다.

ZipCar의 사용방법은 짚스터라고 불리는 회

원이 사용가능한 자동차를 검색하고, 인터넷이나 전화로 예약한다. 시간단위로 예약을 할 수 있으며 예약한 시간만큼 비용을 지불한다. 모든 자동차는 길이나 공용 주차장에 정해진 전용 주차장이 있다.

회원은 짚카드라고 불리는 RFID 방식의 카드를 지급받게 되는데, 이것으로 예약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모든 자동차는 사용시간과 운행거리를 기록하고 이것은 무선 데이터 접속을 통해서 중앙 컴퓨터에 전송된다. 예약 시 자동차 보험과 연료 카드, 그리고 세차 및 유리창 세제와 같은 일상 정비 비용을 포함하고 있다. 누구든지 회원이 되면 자동으로 도시의 짚카드를 예약하고 사용할 수 있다.

3) 쏘카(Socar, <http://www.socar.kr>)

쏘카는 기존 렌트카 대여절차의 번거로움에서 벗어나 공유하는 개념으로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차량 공유 서비스이다. 쏘카는 렌탈업체에서 1일 단위로 빌리는 형식에서 벗어나 최소 30분부터 10분 단위로 시간을 정해서 차량을 사용할 수 있다.

쏘카는 2012년 3월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공유경제의 대표 투자펀드인 콜라보레이티브 펀드(Collaborative Fund)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고, 카카오택시와 서비스 제휴를 맺는 등 매우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2012년 차량 100대로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나 20개월 만에 1,000대, 이후 8개월 만에 2,000대, 다시 5개월 만에 3,000대 규모로 성장하였으며, 회원수도 100만 명을 돌파하였다.

이용방법은 출발지 근처 카셰어링 주차장인 '쏘카존' 모바일이나 인터넷 검색을 하고, 앱에

서 다운 받은 키나 카드키를 이용해서 운전을 한다. 사용 후에는 목적지 근처 쏘카존에 반납하고, 분 단위 사용 비용은 가입 시 등록한 카드로 결제되어진다.

2.2.3 물건의 공유

- 1) 열린 옷장(Open Closet, <http://www.theopencloset.net>)

열린 옷장은 잘 입지 않는 정장을 가진 사회 선배들에게 정장을 기증받아, 면접을 앞둔 청년 구직자들에게 대여해 주는 곳이다. 옷장 속에 잠들어 있는 수많은 옷의 가치를 재발굴하여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연결시켜줌으로써 버려지는 가치를 재생산이나 소비 없이 공유서비스를 통해 의미 있는 사회적 가치를 이루어낸 것이다.

- 2) 집밥(Zipbob, <http://www.zipbobo.net>)

집밥은 소셜다이닝서비스이다. 공통의 관심사를 두고 같이 식사할 수 있도록 중계 역할을 하고 있으며, 소셜다이닝 플랫폼의 하나이다. 집밥을 통해 만난 사람들은 각자의 관심주제로 모임을 개설하여 유사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만날 수 있다. 집밥은 이웃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요즘 같은 소통단절시대에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과 공동체성의 복원'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회문화적혁신을 만들어내고 있는 공유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다.

- 3) 원더랜드(Wonderlend, <http://www.wonderlend.kr>)

개인이 유휴물품을 사이트에 올리면 필요한 사람이 대여할 수 있는 렌탈 중개 서비스이다. 정해진 사람들끼리 물건을 대여할 수 있는 지역,

커뮤니티별 폐쇄적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예를 들어 OO아파트 단지, 서울역 근처 지역, OO교회 커뮤니티 등)이 특징이다.

2.2.4 지식의 공유

- 1) 위즈돔(Wisdome, <http://www.wisdo.me>)

위즈돔은 지혜를 전수한다는 취지에서 설립된 개인의 지식나눔서비스로 이른바 '인생도서관'이며, 개인적 경험의 공유와 같은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다. 지혜를 공유하고 싶은 사람은 '위즈도머'가 되고 위즈돔에 날짜와 시간을 정해 모임을 개설하면 관심 있는 사람(위즈도미)들이 선착순으로 신청하고 이용금액을 사전에 지불하는 서비스이다. 창업 1년 만에 지식을 제공하는 위즈도머는 450명, 활용하는 위즈도미는 5,570명이며 총회원수는 6,500명에 이르며 재구매율은 25%에 이르고 있다.

자본의 쏠림과 사회적 격차를 줄일 해법을 사람과의 관계에서 찾고 있는 위즈돔에서는 책이 아닌 사람의 경험과 지혜, 관계를 빌릴 수 있다. 이곳에서 제공하는 인적 네트워크에서 어떤 사람으로부터 배우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을 대여하여 책을 읽듯이 그 사람으로부터 무언가를 배울 수 있도록 해준다.

- 2) 소셜통(Socialtong, <http://www.facebook.com/groups/socialtong>)

'소셜통'은 사회를 이롭게 하는 정보공유 플랫폼으로, 공익적인 성격의 행사, 일자리, 교육 등의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플랫폼이다. 제 3섹터 종사자는 홍보채널로 사용이 가능하며, 이러한 활동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필요로 하는 소식을 확인할 수 있는 채널이다. 이 플랫폼의 궁극

적인 목적은 사회문제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을 높여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중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키워드들로 접점을 만들어 공익적인 성격의 정보들을 널리 알리고 있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결하기 위한 혁신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3) Taskrabbit(<http://www.taskrabbit.com>)

Taskrabbit은 이케아 가구 조립, 행사 보조, 기부물품 수집, 애완동물 조련, 사무보조, 집 청소, 장보기, 배달 등 다양한 생활서비스 인력을 중개하는 서비스로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태스크포스터(Taskposter)와 이 일을 할 수 있는 태스크래빗(Taskrabbits)을 연결해 준다.

즉, Taskrabbit은 개인이 혼자하기 어려운 소일거리를 이웃들에게 부탁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플랫폼에 도움을 요청하고 비용을 책정하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도와주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여성들은 무거운 짐을 옮기거나 벽에 못을 박는 일을 어려워하고, 반대로 남성들은 요리를 한다거나 인테리어를 새롭게 바꾸는 섬세한 일에 약하며, 독거노인들은 새로운 전자기기 사용법을 익히거나 힘쓰는 일 등에 어려움이 있다.

'Taskrabbit'은 이러한 점을 착안하여 위와 같은 서비스를 만듦으로써 단순히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이웃 간의 신뢰 회복이라는 사회적 자본을 만들어냈다(주광진 2015).

4) 국민도서관 책꽂이(<http://www.bookoob.co.kr>)

국민도서관 책꽂이는 책 대여 서비스로 이미

보았거나 유희자원인 책을 국민도서관 책꽂이에 보관(여기서 이를 '키텅')하고 다양한 책을 대여하는 서비스이다. 현재 3만 3천여 권의 도서를 서비스 중에 있다.

국민도서관 책꽂이는 공유경제가 일반화된 미국이나 독일에는 없는 한국형 공유경제모델로 거론되고 있다. 국민도서관 책꽂이는 개인이 소유하면서 더 이상 읽지 않는 책들을 모아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공유하는 것이다. 이 서비스의 장점은 공간만 차지하는 책을 활용함으로써 개인서재 공간을 절약할 수 있고, 시중에 절판된 책이나 구하기 어려운 책도 대여할 수 있으며, 원하는 기간만큼 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많은 책을 위탁할수록 더 많은 책을 대여할 수 있는 혜택도 있다는 것이다.

국민도서관 책꽂이는 도서 소유자로부터 책을 위탁 받아 직접 보관하고,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택배로 책을 보내 주는 자원보유형 모델로 분류되고 있다. 대여기간이 끝나면 이용자는 해당 도서를 다시 책꽂이에 택배로 보내주게 된다.

3. 연구절차 및 연구질문

본 연구는 공유경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공유경제가 도서관과 무관한가에 대한 질문제기로부터 시작되었다. 실제로 도서관은 유사 이래 공유경제를 실현해 온 산 역사이다. 공간, 물건, 교통, 지식으로 구분되어 공유경제 실현 방향을 논의하고 있지만 도서관은 장소와 공간, 책이나

잡지 및 도서관의 모든 물리적 자원을 공유해 왔으며, 또한 소장된 지식과 서비스를 공유해 왔다.

본 연구에서는 공유경제와 도서관의 관계를 설명하고 지금보다 더 확장적으로 도서관을 통해 공유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도서관 및 사서가 공유경제를 리드해 가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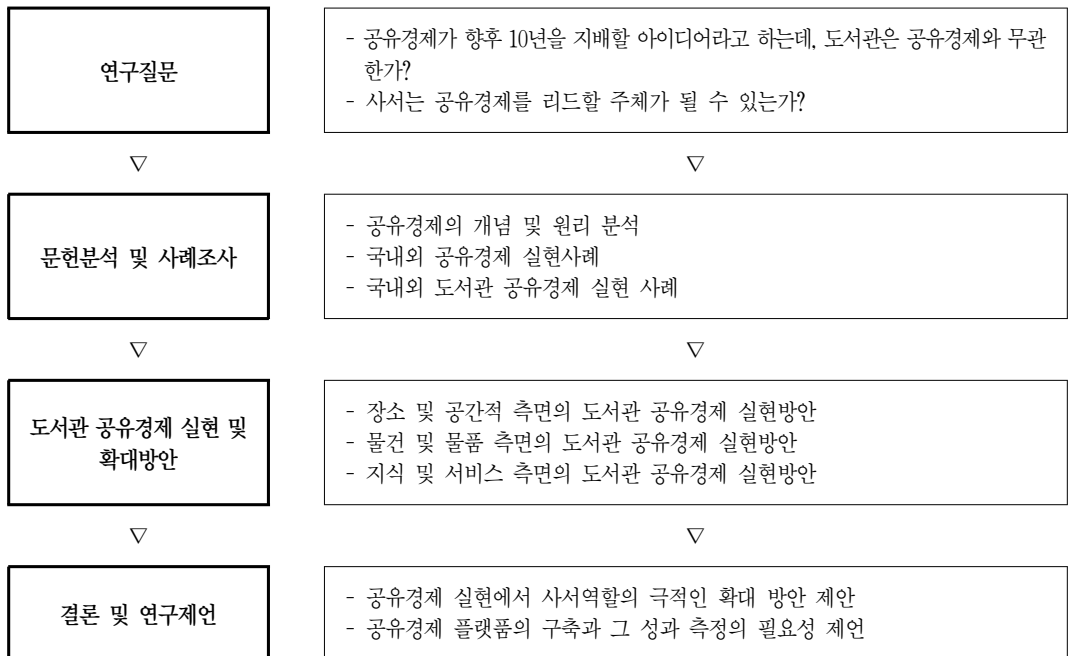
이를 위해 먼저 공유경제의 개념에 대해서 깊이 있게 분석하였다. 그리고 공유경제가 실현되기 위한 원리, 그리고 공유경제의 대상이 되는 것들에 대해 조사하였다. 다음으로 공유경제 실현 사례에 대해 국내외적으로 살펴보고, 도서관 공유경제 사례들도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기초자료조사를 기반으로 도서관

에서 공유경제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장소 및 공간, 물건 및 물품, 지식 및 서비스 개념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절차를 도식화하여 제시하면 <그림 2>와 같다.

본 연구에서 제기된 연구질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으며, 문헌분석 및 사례분석을 통해 그 답을 찾고 논의부분에서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논의하고자 하였다.

- RQ 1: 공유경제와 도서관은 어떤 관련이 있는가?
- RQ 2: 도서관에서 공유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 RQ 3: 사서는 도서관의 공유경제 실현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그림 2> 연구절차 및 연구내용

4. 공유경제의 도서관적용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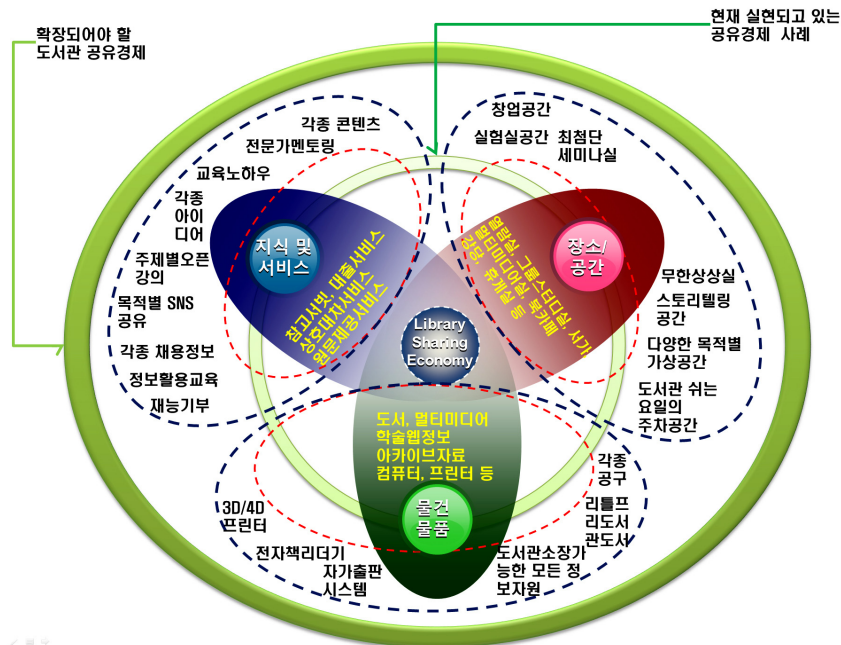
도서관 또는 책과 관련하여 공유경제가 실현된 사례는 국내외적으로 상당히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위에서 소개한 국민도서관 책꽂이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의 발전으로 퇴물이 되어가는 공중전화부스를 무인도서관으로 활용하는 사례들도 있다. 경기권역 도심을 중심으로 공중전화부스를 활용한 무인도서관은 '스토리가 있는 행복 플랫폼', '책뜨락', '인문학도서관' 등 마을마다 특징적인 이름으로 불리며 시민들의 지식창고가 되고 있다. 그 외 각종 공구들을 필요한 사람과 공유하는 전주시의 공구도서관과 같은 사례 등이 있다.

Australian Library and Information Association(2013)은 도서관과 도서관사서는 공유

경제, 자원 및 공간 공유에 있어서 그 잠재력과 가치를 증명해 온 리더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다만 공유경제의 내용이 전자장치, 교통, 도구, 교육, 장비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도서관도 그 변화를 수용해야 된다고 하고 있다. 즉, 도서관은 공유경제 시대에 할 수 있는 것과 사람들이 공유에 관심이 있어 하는 것 등을 찾고 공유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Jeremiah Owyang(Chief Catalyst and Founder of Crowd Companies)는 고객이 개인적으로 책을 소유하는 대신에 도서관 자원을 공유해 왔기 때문에 공유경제의 초기 모델은 도서관이라고 하였다(Roy 2014).

실제로 도서관은 수세기 동안 책, 저널, 디지털자원들이 이용자에게 의해 공유될 수 있도록 제



<그림 3> 도서관 공유경제 실현 사례 및 확장 가능성

공해 왔다. 최근에는 무한상상실을 도서관에 마련함으로써 지식뿐만 아니라 경험, 도구, 장비, 독서감상, 스토리 등을 공유하며, 그 공유자원의 범위를 확대해 가고 있다. 공유경제에서 말하는 장소, 물건, 지식의 공유는 이미 도서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유경제의 장소, 물건, 지식 및 서비스의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도서관에서 적용되었던 개념과 앞으로 확장가능한 공유서비스를 중심으로 적용방안 등을 확대 검토하고자 한다. 위의 세 가지 개념의 도서관 적용 가능성을 집약해서 표현해 보면 <그림 3>과 같다. 안쪽 원은 현재 실현되고 있는 공유경제 사례이고, 바깥쪽 원은 확장되어야 할 공유경제 사례이다.

4.1 장소의 공유

타 분야에서 공유경제를 거창하게 말하고 있을 때, 도서관에서 장소의 공유경제 개념은 전혀 새롭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도서관에서 장소의 공유경제로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열람실이다. 별도의 개인적인 독서 및 공부공간을 두지 않고 도서관에 있는 열람공간을 이용자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룹스터디실, 서가공간, 멀티미디어실 등도 역시 함께 이용하는 공간으로써 공유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무한창조공간을 설치하는 도서관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Roy(2014)는 도서관 내 다양한 유형의 무한창조공간은 모든 연령대의 이용자들이 자원을 공유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이용자가 자원과 공간의 소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하였다. 미국의 경우 Makerspace라는 이름으로, 한국에서는 무한상상실이라는 이름으로 도서관에 설치하고 있으며, 각종 지식 및 경험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장비, 장소 등을 공유하고 있다. 즉, 도서관은 무한상상실을 통해 장소, 물건, 지식 및 서비스를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도서관의 공유경제 적용을 확장하여 구상한다면, 도서관은 창업을 위한 준비공간이 될 수 있다. 지역주민이 공유할 수 있는 각종 실험장비가 갖추어진 실험실 공간, 스토리가 있고 스토리를 창작할 수 있는 공간, 경우에 따라서 최첨단 세미나실을 전면적으로 공개하여 상시 이용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북카페를 통해 각종 책을 읽고 친구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공간 등이 될 수 있다. 공공도서관의 경우 주차공간을 공

<표 3> 도서관 장소의 공유

현재		미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람실 • 그룹스터디실 • 서가 • 멀티미디어실 • 북카페 • 소강당, 대강당 등 • 휴게실 	확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공간 • 실험실 공간 • 스토리텔링공간 • 작업공간 • 최첨단세미나실 • 무한상상실 • 다양한 목적별 가상공간 • 도서관 쉬는 요일 도서관 주차공간

유하는 방법으로 공공도서관마다 쉬는 요일 정보, 주차가능 댓수 등에 대한 정보를 구축하여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도서관은 공유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별도의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도서관에 있는 공간과 자원을 그대로 확장하여 활용하면 되는 것이다. 도서관을 24시간 오픈하여 활용하는 체제로 변경하고, 지역주민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면 도서관 예산이나 인력지원은 자연스럽게 결과가 될 것이다.

그러나 도서관 전체가 공유공간이라고 하지만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공간기능을 제공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도서관별로 그 공간기능을 특화 또는 전문화시키고, 이를 네트워크로 구축하고 SNS 등을 활용하여 홍보 및 공유시키는 방안이 요구된다. 이는 셰어링 하우스 모델을 적용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으며, 도서관에 다목적 공간을 마련한다면 공유경제의 의미를 실현하는 매우 매력적인 공간이 될 것이다.

특히 도서관은 스마트워크센터로서의 기능을 제공해 줄 수도 있다. 집이나 PC방에서 작업을 할 수도 있지만, 누구나 가까운 도서관의 업무환경(컴퓨터, 프린터, 스캐너, 화상회의기능, 각종 필기도구 및 사무집기 등)이 완벽히 갖추어진 스마트워크 공간에서 업무, 연구, 과제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채택근무가 일반화되어가는 시대에 적합한 도서관서비스가 될 수 있을 것이다.

4.2 물건의 공유

장소보다 물건의 공유가 더 많이 이루어져

왔고 더 많이 확장될 수 있는 곳이 도서관이다. 도서관에 있는 자원의 활용은 도서, 멀티미디어, 각종 학술웹정보, 아카이브자료를 포함하여 프린터, 컴퓨터, 스캐너, 복사기 등 도서관 안에 있는 모든 물건 및 물품들이 공유경제를 실현하고 있는 자원이다.

예를 들어 토론토에 있는 Kitchen Library (<http://thekitchenlibrary.ca>)는 공유경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매우 비싼 공구를 지역주민이 공유할 수 있게 한 사례로 뽑히고 있으며(Alter 2013), 토론토에 있는 Toronto Tool Library (Centre for Social Innovation 2014)처럼 Berkeley Tool Lending Library도 각종 공구를 대여해 줌으로써 학생들이 과제를 수행할 때, 각종 실험을 할 때,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공구를 대여해 주고 있다. 구입해서 한 두 번 쓰고 보관되는 것을 도서관에서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대여해 줌으로써 그 활용도를 높이고 자원도 절약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다. 또한 포트랜드의 Maine Tool Library는 잔디 깎는 도구, 손수레, 거대압착기 등 각종 주방 및 조경 도구를 공동으로 구입, 대여해 주는 도서관으로 지역주민들의 불필요한 소비를 줄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유형의 도서관은 오하이오 콜롬버스, 워싱턴 시애틀, 오레곤 포트랜드 등 여러 곳에서 이미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Cook 2015). 또한 Seed Library(<https://www.newdream.org/resources/webinars/seed-library>)는 각종 씨앗을 공유하는 것으로 도서관을 통해 공유경제를 실현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또한 물건의 공유경제 개념을 도서관에 적용하여 성공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시스템은 'SHARE: Library of Things'이다. SAHRE는 2015년 초에

〈표 4〉 도서관 물건 및 물품의 공유

현재		미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 • 멀티미디어 • 영화 및 영상자료 • 학술웹정보 • 아카이브자료 • 컴퓨터 • 프린터 • 스캐너 • 복사기 등 	확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D 및 4D 프린터 등 최첨단 장비 • 전자책리더기 • BookMachine 등 자가출판시스템 • 리틀프리도서관의 도서 • 아나바다의 공유물건 • 각종 공구 • 도서관에 소장가능한 모든 자원

Frome Town과 Edventure, Sustainable Frome, 그리고 The Cheese and Grain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탄생되었다. SHARE의 목적은 사람들이 적게 소비하고, 적게 소모하며, 보다 많이 연결되는 것이다(illinois Library Association 2015; Reaching Across Illinois Library System 2015). SHARE에서는 악기, 스포츠도구, 가정용품 등 원하는 모든 것을 빌릴 수 있다(Johnson 2015).

Sacramento Public Library는 Library of Things Shop를 운영하고 있으며, 비도서자료 즉, 가드닝 도구, 스포츠 장비, 기계장비 등 커뮤니티가 원하는 모든 물건을 제공한다. 지역주민은 빌리고 싶은 것을 웹사이트에 제안할 수 있는데, 이는 비디오 게임, 재봉틀, 디자인 소프트웨어, 고해상도 비디오 카메라, 아이패드, 수면추적기, 3D 스캐너 등 매우 다양하다(Kelley 2014).

전통적인 물건을 포함하여 미래에 공유경제를 실현할 도서관에 구비 가능한 물건에는 제한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통적으로 도서관 및 개인소장 영화 및 영상자료를 공유하고, 도서관 및 개인소장 책의 공동활용 플랫폼과 아나바다 공유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농촌에 있는 도서관의 경우 각종 농기구 수리 장비, 각종 공구를 공유하는 공간을 마련 할 수 있을

것이다. 도서관의 특징을 살려 특성화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한 후 공유플랫폼을 통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리틀프리도서관(Little Free Library)들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개인이 소장한 자료들을 리틀프리도서관에 가져다 놓고 다른 책들을 빌려다 보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세계지도에 리틀프리도서관의 위치가 표시되고 있다. 한국에도 두 세 개의 리틀프리도서관이 이미 구축되어 있는데 이러한 시스템을 각종 도서관들이 중심이 되어 각 도서관의 지역을 중심으로 리틀프리도서관을 활성화시키면 국민도서관 책꽂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효과적인 도서공유체제가 구축될 것이다. 이러한 리틀프리도서관은 공유경제의 대표적인 아이디어 모델로 평가되고 있다(Miranda 2014).

4.3 지식 및 서비스의 공유

도서관은 도서관의 역사와 함께 지식 및 서비스를 공유해 온 곳이다. 도서관에 있는 모든 것이 지식이고 서비스이다. 책, 멀티미디어, 학술웹사이트 등의 모든 정보원에 담겨있는 것이 지식이고, 참고서비스, 대출서비스, 상호대차서비

〈표 5〉 지식 및 서비스의 공유

현재		미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의 모든 정보자원에 있는 지식 • 참고서비스 • 대출서비스 • 상호대차서비스 • 원문제공서비스 	<p>확장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콘텐츠 • 주제별 특성화 자료 • 전문가 멘토링 • 전문가들의 경험과 지식(재능기부) • 교육 노하우 • 각종 주제의 지식 • 창업아이디어 • 각종 주제별 오픈강의 공유 • 각종 채용정보 • 정보활용교육 • 목적별 SNS 공유

스, 원문제공서비스 등 모든 것이 공유경제에서 말하는 서비스의 공유이다.

최근에는 도서관에서 창업아이디어, 책출판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되고 있다. 도서관에서는 전문가 멘토링이 제공될 수 있고, 교육 노하우가 전달될 수 있으며, 초급자와 고급자가 서로 경험과 지식을 주고받는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고급인력의 전문가이지만 퇴직 후 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찾는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도서관은 전문가 풀 DB를 구축하여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도서관이 중심이 되어 구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미 많은 도서관에서 전문가 풀을 구축하여 활용한 사례들이 있는데, 이를 확장하여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도서관의 전통적인 서비스인 온라인참고서비스로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사서에게 물어보세요'는 공유경제를 효과적으로 실현한 사례로 뽑을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온라인참고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

여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도서관 사서들이 이용자들의 참고요구를 협력적으로 해결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지식 및 서비스 공유모델은 끊임없이 개발되고 확장되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향후 10년 이상 지속될 공유경제 시대에 도서관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공유경제의 내용을 끊임없이 개발해서 제공함으로써 도서관의 존재감과 그 가치를 드높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5. 논의 및 향후연구

5.1 논의

본 연구에서는 공유경제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고 공유경제와 도서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다. 그 중에서 공유경제와 도서관은 어떤 관련이 있으며, 도서관에서 공유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서 사서는 어떤 역할을 해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질문을 기

반으로 집중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공유경제와 도서관은 어떤 관련이 있는가에 관한 것인데, 사례분석 및 선행연구를 보면 공유경제와 도서관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학자들의 주장과 간단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도서관에서의 공유경제의 실현 사례는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Garlick(2014)은 도서관이 진정한 공유경제의 개척자라고 주장했고, Mies(2014)도 도서관은 수세기 동안 정보 및 도구를 공유해 온 공유경제의 성공적 모델이라고 했으며, 최근에 공유경제가 핫이슈가 되고 있지만 도서관에 있어서 공유경제가 새로운 것은 아니라고 했다. 도서관이 공유경제의 초기 모델이라는 것은 이 외에도 많은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ALIA 2013; Roy 2014). 또한 Mies(2014)는 도서관이 공유경제의 리더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둘째, 도서관에서 공유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에 대한 논의는 지금의 공유경제 범위보다 훨씬 확장된 실현방안을 말하는 것이다. 즉, 도서관은 이미 수세기 동안 정보, 미디어, 각종 도구 등의 공유를 통해 오늘날 빅이슈가 되고 있는 공유경제를 실현해 왔다. 그리고 2015년 전주시의회의 생활공구 등을 대여하는 '공구도서관' 시행제안, 개인이 소유하면서 더 이상 읽지 않는 책들을 모아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공유하는 '국민도서관 책꽂이' 등이 도서관의 공유경제 모델로 언급되고 있지만, 사실 도서관은 유사 이래 공유경제를 실현한 기관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감대가 이미 형성된 것이다. 즉, 도서관은 열람실, 멀티미디어실, 서가공간 등 공간 및 장소의 공유, 도서, 멀티미디어자료, 각종 IT자원 등 물건의 공유, 그리고 도서관

내 모든 지식 및 서비스의 공유를 이루어 왔다. 다만 공유경제는 인적, 물적 자원을 공유하는 사회-경제적 생태계(Socio-Economic Ecosystem)를 만드는 것으로 도서관의 자원뿐만 아니라 외부 자원을 공동활용하는 쪽으로 확장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서관이 스마트워크센터로서의 기능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 누구나 가까운 도서관의 업무환경(컴퓨터, 프린터, 스캐너, 화상회의기능, 각종 필기도구 및 사무집기 등)이 완벽히 갖추어진 스마트워크 공간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도서관들이 지역단위로 중심이 되어 리틀프리도서관의 플랫폼 역할을 한다면, 도서관 자원뿐만 아니라 개인소장 자료도 공동활용할 수 있는 모델을 제공할 수 있다.

셋째, 이처럼 도서관에서 공유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은 무궁무진하지만, 문제는 누가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고, 이끌어어나느냐이다. 모든 일의 성패는 사람에게 달려있듯이 사서는 도서관의 핵심이며, 따라서 사서가 도서관 공유경제를 실현 해 내야 하는 것이다. 리틀프리도서관 중심의 도서자료 공유경제를 실현한다고 할 때 도서관을 중심으로 리틀프리도서관을 만들고 도서관의 자원은 물론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자원들을 가져다 놓도록 하며, 이를 전국적인 네트워크로 구축하고 SNS 등을 활용하여 홍보하고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서의 몫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도서관에 구축된 다양한 주제로 운영되고 있는 무한상상실 공유플랫폼을 구축하는 것, 도서관에서 봉사할 전문가 풀을 구축하여 인력공유경제를 실현하는 것, 장소 및 도서관의 기능별 정보를 구축하여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

하는 것 등은 다수의 사서가 협력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Awimbo(2014)와 그의 동료들은 Community Share Workshop with the MSDE을 개최하여 약 50명의 사서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유경제 시대에 사서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했으며, 공유경제를 도서관에 도입하는 방안, 도서관 프로그램에 공유개념을 적용하는 방안, 공유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함께 일할 그룹을 위한 회의실을 만들어 주는 것, 공유프로젝트에 관심이 있는 지역사회 관계자를 초대하는 것 등의 아이디어가 제안되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공유허브를 구축하여, 국내의 모든 공유경제를 등록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유하는 법 및 공유플랫폼에 대해 매우 상세히 소개하고 있으며, 어느 누구라도 쉽게 공유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공유도서관(Sharing Library)을 구축하고 공유경제를 실현할 것을 공유경제 시대에 적극적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5.2 향후 연구제안

본 연구에서는 다음 10년을 지배할 시스템,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10가지 아이디어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는 공유경제에 대해 살펴보고, 이러한 공유경제가 우리 도서관계 및 사서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향후 연구에서는 도서관을 통해 지금의 공유경제 사례를 한 단계 더 뛰어넘는 미래형 공유경제를 구현하고 그 구현사례를 통해 얻게 된 효과 및 성과를 검증하는 연구 등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한 곳에서, 하나의 도서관에서 몇 명의 사서에 의해 공유경제가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 어찌면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도서관 및 사서 중심 공유경제가 실현된 사례의 구현은 앞으로 10년을 지배할 공유경제 시대에 도서관의 입지를 극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Mies(2014)는 도서관이 공유경제의 중심이 되는 세 가지 방법을 제안하고 있는데, 첫째, 콜로라도에 있는 Paonia Library처럼 커뮤니티 멤버 중 공유경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도서관에 초대해서 공유경제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것이다. 둘째, 도서관의 프로그램을 공유경제라는 맥락에서 소개하라는 것으로, 리틀프리 도서관(Little Free Library)이나 종자도서관(Seed Library) 등에 대해서 소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공유경제관련 컨퍼런스에 참여하여 도서관 공유경제를 소개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안이 결코 어렵지 않은 작은 실천제안으로 보이며 향후 도서관이 공유경제의 리더로 되기 위한 전략으로 생각된다.

6. 결 론

공유경제의 핵심은 한 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하여 그 효용을 높이는 경제모델로 자원을 소유하지 않고 공유, 교환, 대여하는 형태를 기반으로 과잉소비를 막고 자원절약과 비용절감을 하는 것이다. 결국 공유경제는 자원이나 서비스의 전체 가치 중에서 활용되지 못하는 가치를 없애 활용도를 전체 가치이상으로 증대시키기 위한 경제활동인 것이다.

이러한 공유경제는 ICT의 발전으로 급격하게 활성화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SNS와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공유, 개방, 협업을 추구하는 모델인 공유경제와 협력창조(Co-Creation)가 등장하게 되었으며, SNS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참여하고, 참가자에 대한 신뢰를 확인한다.

공유경제 실현 사례는 수없이 많이 있으며, 도서관, 지식, 콘텐츠, 도서 등의 분야에 적용되는 사례는 국내외적으로 점점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공유경제의 개념이 도서관에는 새로운 개념이 아니고 가장 최초의 적용모델로 국내외 학자들에 의해 언급되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인 성공사례는 국민도서관 책꽂이, 책뜨락, 사서에게 물어보세요, Kitchen library, Toronto Tool Library, Berkeley Tool Lending Library, Maine Tool Library, Seed Library, Sacramento

Public Library 등을 들 수 있다.

LibrarianShipwreck(2014)에서는 공유경제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도서관을 가보면 된다고 했다. 도서관은 커뮤니티가 공동 투자해 놓은 자원들을 소장해 놓고 이용자들이 자료와 도구와 공간을 공동활용하는 기본적인 공유경제 모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공유경제가 앞으로 10년 이상 미래 경제사회를 지배하게 된다고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도서관과 우리 사서는 어떤 내용과 전략으로 공유경제를 리드해 갈 것인가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해 보아야 한다. 세미나나 워크숍, 각종 학술대회를 통해 공유경제와 도서관의 역할, 그 중에서 사서의 역할확대를 논의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김은란. 2015. '공유', 도시의 새로운 해법이 될까? 『국토』, 407: 92-97.
- 김점산, 지우석, 강상준. 2014. 공유경제(Sharing Economy)의 미래와 성공조건. 『이슈&진단』, 134: 1-25.
- 『국제뉴스』. 2015. 오정화 의원 "공유경제 위해 공구도서관 시행해야." 5월 16일 [online]. [cited 2016.6.24].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63190>>.
- 『머니투데이』. 2014. "'공유경제' 기존시장과 영역달라 충돌보단 성장활력소 될것." 6월 19일 [online]. [cited 2016.6.25].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061107043888702&outlink=1>>.
- 『서울특별시뉴스』. 2013. 어르신과 대학생의 주거공유 '한지봉세대공감' 추진. 2월 12일 [online]. [cited 2016.6.23]. <<http://welfare.seoul.go.kr/archives/12475>>.
- 『시민일보』. 2015. 가평군, 주민자치위원 지혜와 역량 나누며 공유문화 다져. 12월 3일 [online]. [cited 2016.6.23]. <<http://www.simin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7057>>.

- 『중앙일보』. 2014. 차량·숙소·장난감 … 놀리느니 같이 씩시다. 7월 24일 [online]. [cited 2016.6.24].
 <<http://news Joins.com/article/15342824>>.
- Airbnb and the Unstoppable Rise of the Share Economy. 2013. Forbes, February 11 [online]. [cited 2016.6.24].
 <<http://www.forbes.com/sites/tomiogeron/2013/01/23/airbnb-and-the-unstoppable-rise-of-the-share-economy>>.
- Alter, Lloyd. 2013. The Kitchen Library is the latest idea in the sharing economy [online]. [cited 2016.6.24].
 <<http://www.treehugger.com/kitchen-design/kitchen-library-latest-idea-sharing-economy.html>>.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2015. Sharing Economy [online]. [cited 2016.6.23].
 <<http://www.ala.org/transforminglibraries/future/trends/sharingeconomy>>.
- Australian Library and Information Association. 2013. Future of the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Profession [online]. [cited 2016.6.24].
 <<https://www.alia.org.au/futureoftheprofession>>.
- Awimbo, Anna. 2014. What Is the Role of Librarians in the Sharing Economy? [online]. [cited 2016.6.24]. <<https://www.newdream.org/blog/role-of-librarians-sharing-economy>>.
- Botsman, R., and R. Rogers. 2010. *What's Mine Is Yours: The Rise of Collaborative Consumption*. New York: Harper Business.
- Centre for Social Innovation. 2014. The Sharing Economy and the Toronto Tool Library - What is Social Innovation? [online]. [cited 2016.6.24].
 <<https://www.youtube.com/watch?v=zPw3KzrGLCA>>.
- Cook, Nancy. 2015. In Search of the Anti-Uber. The Atlantic, August 1 [online]. [cited 2016.6.23].
 <<http://www.theatlantic.com/business/archive/2015/08/uber-sharing-economy-roots/400187/>>.
- Gansky, L. 2010. *The Mesh*. Newyork: Penguin USA.
- Garlick, Ross. 2014. Ramble of the day: The Library is a Sharing Economy Pioneer [online]. [cited 2016.6.24].
 <<http://rossgarlick.com/2014/01/16/ramble-of-the-day-the-limits-of-the-sharing-economy/>>.
- We-commerce: The sharing economy's uncertain path to changing the world. 2014. TechRepublic, September 9 [online]. [cited 2016.6.24].
 <<http://www.techrepublic.com/article/we-commerce-the-sharing-economys-uncertain-path-to-changing-the-world/>>.
- Illinois Library Association. 2015. Better Together: Libraries in The Sharing Economy. Chicago:

- Illinois Library Association [online]. [cited 2016.6.23].
〈https://www.ila.org/content/documents/Better_Together_2015_FINAL.pdf〉.
- Johnson, C. 2015. A Library of Things Puts Frome On the Map as a Sharing Town [online]. [cited 2016.6.25].
〈<http://www.resilience.org/stories/2015-06-15/a-library-of-things-puts-frome-on-the-map-as-a-sharing-town#>〉.
- Kelley, C. 2014. In the spirit of the “sharing economy,” the Sacramento Public Library launches a “Library of Things” [online]. [cited 2016.6.24].
〈<http://www.mhpbooks.com/in-the-spirit-of-the-sharing-economy-the-sacramento-public-library-launches-a-library-of-things/>〉.
- Kim, Dong-Seok and Younghee Noh. 2014. “A Study of Public Library Patrons’ Understanding of Library Records and Data Privacy.” *International Knowledge Content Development & Technology*, 4(1): 53-78.
- LibrarianShipwreck. 2014. If You Want to See the Sharing Economy ... Go to the Library [online]. [cited 2016.6.24].
〈<https://librarianshipwreck.wordpress.com/2014/07/10/if-you-want-to-see-the-sharing-economy-go-to-the-library/>〉.
- Matofska, B. 2014. What is the Sharing Economy? [online]. [cited 2016.6.23].
〈<http://www.thepeoplewhoshare.com/blog/what-is-the-sharing-economy/>〉.
- Mies, G. 2014. Libraries Need to Lead the Sharing Economy [online]. [cited 2016.6.24].
〈<http://www.techsoupforlibraries.org/blog/libraries-need-to-lead-the-sharing-economy>〉.
- Miranda A. 2014. Sharing Economy - Little Free Library Unites Brooklyn Neighborhood Bookworms [online]. [cited 2016.6.23].
〈<http://blog.krrb.com/sharing-economy-little-free-library-unites-brooklyn-neighborhood-bookworms/>〉.
- Rifkin, J. 2011. *The Third Industrial Revolution*. London: Palgrave macmillan.
- The rise of the sharing economy. 2013. *Economist*, March 9 [online]. [cited 2016.6.23].
〈<http://www.economist.com/node/21573104/>〉.
- Roy, M. 2014. For Social Good: Libraries and the Sharing Economy [online]. [cited 2016.6.24].
〈<https://www.webjunction.org/news/webjunction/for-social-good-libraries-and-the-sharing-economy.html>〉.
- Sundararajan, A. 2014. Peer-to-peer businesses and the sharing (collaborative) economy: overview, economic effects and regulatory issues [online]. [cited 2016.6.24].

〈http://smallbusiness.house.gov/uploadedfiles/1-15-2014_revised_sundararajan_testimony.pdf〉.

10 Ideas That Will Change the World. 2011. Time, March 17 [online]. [cited 2016.6.24]. 〈http://content.time.com/time/specials/packages/article/0,28804,2059521_2059717_2059710,00.html〉.

[참고한 웹사이트]

국민도서관 책꽃이 [online]. [cited 2016.6.23]. 〈<http://www.bookoob.co.kr>〉.

비엔비히어로 [online]. [cited 2016.6.23]. 〈<http://www.bnbhero.com>〉.

서울특별시 주택·도시계획 [online]. [cited 2016.6.23]. 〈<http://citybuild.seoul.go.kr>〉.

쏘카 [online]. [cited 2016.6.25]. 〈<http://www.socar.kr>〉.

열린 옷장 [online]. [cited 2016.6.26]. 〈<http://www.theopencloset.net>〉.

원더랜드 [online]. [cited 2016.6.27]. 〈<http://www.wonderlend.kr>〉.

위즈돔 [online]. [cited 2016.6.23]. 〈<http://www.wisdo.me>〉.

집밥 [online]. [cited 2016.6.25]. 〈<http://http://www.zipbob.net>〉.

코자자 [online]. [cited 2016.6.25]. 〈<http://www.kozaza.com>〉.

AirBnB [online]. [cited 2016.6.24]. 〈<http://www.airbnb.co.kr>〉.

Kitchen Library [online]. [cited 2016.6.23]. 〈<http://http://thekitchenlibrary.ca>〉.

Seed Library [online]. [cited 2016.6.23].

〈<https://www.newdream.org/resources/webinars/seed-library>〉.

Taskrabbit [online]. [cited 2016.6.23]. 〈<http://www.taskrabbit.com>〉.

Uber [online]. [cited 2016.6.23]. 〈<http://www.uber.com>〉.

Uberkorea [online]. [cited 2016.6.23]. 〈<https://www.facebook.com/UberKorea/>〉.

ZipCar [online]. [cited 2016.6.27]. 〈<http://www.zipcar.com>〉.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Accommodation, vehicles, toys ... Let's share it rather than leave it unused. 2014. *Joongangilbo*, July 24 [online]. [cited 2016.6.24]. 〈<http://news.joins.com/article/15342824>〉.

GaPyeong-Gun, Citizen Committeeman, Share wisdom and competence and strengthen sharing culture. 2015. *Siminilbo*, December 3 [online]. [cited 2016.6.23].

〈<http://www.simin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7057>〉.

Kim, Eun Ran. 2015. "'Sharing', Will it be a new solution to the city?" *Planning and Policy*, 407: 92-97.

Kim, Jeom San, Woo Seok Ji, and Sang Jun Kang. 2014. "The Future and Success Conditions of Sharing Economy." *Issue&Diagnosis*, 134: 1-25.

Senator JungHwa Oh "Tool Library must be performed for Sharing Economy." 2015. *Gukjenews*, May 16 [online]. [cited 2016.6.24].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63190〉](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63190).

Seniors and College Students are Sharing Housing, 'Promoting Generation to Generation under One Roof.' 2013.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February 12. [online]. [cited 2016.6.23].

[〈http://welfare.seoul.go.kr/archives/12475〉](http://welfare.seoul.go.kr/archives/12475).

'Sharing Economy' 'Sharing Economy' having the different market area will be the lifeblood growth without conflict. 2014. *Moneytoday*, June 19 [online]. [cited 2016.6.25].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061107043888702&outlink=1〉](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061107043888702&outlink=1).